

# 근대불교의 결승 용성 선사 전계사로 재조명

傳戒師

## 심지계법 통한 새로운 전계운동이 한국 불교의 활로



용성 스님의 원돈율이 한국 고유의 심지계법임을 강조한 학담 스님(왼쪽)과 논평을 한 해담 스님(오른쪽).

만해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한 스님 중의 한명. 독립운동에 앞장섰음은 물론 경허 스님 등과 함께 근대 선을 꽃피운 인물. 어지럽던 근대기를 당대의 선지식으로 살다간 용성 선사를 일컫는 말이다. 선사이면서도 법사와 관정사, 사업가로 전방위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했던 용성 스님을 उस사로 재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올해 용성 스님을 통해 그의 심지계법이 분단된 땅을 정토로 바꾸고, 고통 받는 민족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친 이는 대각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용성진종선사의 원돈을 사상과 선을결합의 선종'을 주제로 발표한 학담 스님(대각회 감사)이다.

스님은 "선이 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이 율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과 율이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불교의 폐단이 선을 모르고 율만을 논하는 일부 율사나 율행 없는 선을 조사선이라 착각하는 일부 선사들에 있다고 지적한 스님은 용성 스님의 선율결합(禪律兼行·선율병운(禪律併運)의 수행가운데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용성 스님의 율은 <범방경>을 근간으로 한 대승심지계(大乘心地戒)로 출가승단의 사분율을 회통한 율이며, 용성 스님의 전계는 선(禪)인 계를 전한 것"이라고 말한 스님은 중국 사분율종과는 다른 심지계법과 원돈율로 용성 스님의 계법을 정의했다. 즉 "용성 선사의 율은 지키고 깨뜨릴 것이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율로(心地戒體) 율을 그치지 않고(攝善儀) 선을 행함 없이 행하는(攝善法) 법계의 무량한 공덕으로 중생을 널리 거두는(攝衆生) 율"이라는 것이다.

용성 스님의 계율은 다음 이야기로 집약된다.

용성 스님이 중국에 머물 당시 통주 화엄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승이 용성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은 곳을 물으며 "인제 우리 중국의 계가 조선에까지 들어갔는가?"라고 빈정대듯 물었다. 그때 율리는 범종소리에 용성 스님이 물었다. "저 소리는 그대의 것인가, 나의 것

인가?" 이에 선승은 "그야 어찌 내 것, 그대의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고 용성 스님은 계속해서 물었다. "하늘의 해와 달은 중국의 것인가, 조선의 것인가." "어찌 해와 달이 중국 것과 조선 것이 있겠는가." 그러자 용성 스님은 "그런데 어찌 불법도 그와 같음을 보지 못하는가, 불법이 어찌 어디에선 크고 어디에선 작겠는가"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구한말 조선인이, 또 스님이 멸시 받기 쉬운 때에 올바른 깨달음을 하나로 '해동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용성 스님의 율을 학담 스님이 원돈율이라 표현한 것은 <범방경>의 심지계법과 사분율을 회통했다는 것이 이유다. "예석하게도 현재 한국 불교 계단에는 상부율종과 남산율종이 얽혀있을 뿐 용성의 원돈율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성 스님에게 법을 받고 전계대화상으로서 계를 전한 대표적 율사로는 풍산 율사, 고안 율사, 자운 율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린 금강계단의 계첩은 중국 고심여행 율사의 계책으로

용성 스님의 율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담 스님의 견해다. 용성 스님의 원돈율만이 자장-진표-지공-나옹-환성-대은으로 이어지는(한국 고유) 심지계법이며, 한국 불교의 율은 중국 율종과 전승체계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재 한국 불교 율맥을 중국율의 전승을 통한 비주체화되고 형식주의에 굳어진 계법으로 진단했다. "이 땅에서 1700년 면면히 구족계를 실천한 것이 중국 율맥의 맨 끝 한자락을 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강한 표현도 했다. "계맥의 단절과 율학의 위기를 외치며 우리 율의 전승을 부정하고 외국에서 계를 받아오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님은 무기력해지고 형식화된 계법 전승에 대한 대안으로 <범방경>의 심지계법을 제안했다. "용성 스님의 심지계법이 반야의 눈이 되고 보살의 역동적인 행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스님은 새로운 전계운동을 주문했다. 결국 한국 불교 개혁의 열쇠는 부처님 말씀(범방경)에 있음을 새삼 강조한 발표였다.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를 발표한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한국 불교근대화를 전통주의와 근대주의로 나누고 "용성 스님은 전통주의를 이념으로 했으나 대각교 운동은 근대주의의 형태로 표출했다"고 역설했다. 전통과 근대의 구분에 대해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의 불법·계율·창구 등에 기인한 전통적 불교사상은 이념적 보수성향을 나타내고, 역경사업과 불교 자립을 위한 조함운영, 광산 경영 등에 나선 것은 진보성향의 표출"이라고 설명했다. 대각교 운동이 이념과 실천방법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혀 단절된 이유를 김 교수는 교단과의 관계, 내부 조직 취약과 계승자 부재로 지적해 대중들에게 조직의 구성과 인재발사의 중요함을 각인시켰다.

한편 함께 발표한 보광 스님(동국대)은 '대각사 창건 시점에 관한 제문제'를 통해 창건 100주년에 임박한 대각사의 창건시기를 되짚었다.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 보광 스님은 1916년 창건설에 무게를 두었다.

조동섭 기자

# 부처의 눈으로 대중문화 읽기

문화작품을 불교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자리

1999년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었다. 불교사상이 녹아 있다고. 혹은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1월 30일 동국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모인 이들도 그랬다. 문학·게임·영화·만화를 소재로 나뉜 발표들은 문화 작품을 불교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불교 이미지를 찾는 자리였다.

최원섭(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씨는 '타입머신과 예언의 불교적 이해'를 통해 영화 '데자뷰'와 '넥스트'에 대한 불교 읽기를 시도했다.

'데자뷰'는 뉴올리언스 부두의 페리호 폭파 사건을 수사하는 더그 칼린(켄넬 워싱턴)은 폭파 사건 이전에 사망한 클레어(플라 패튼)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직관에 타입머신을 통해 추적을 한다. 폭파 이전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더그는 결국 자신이 직접 폭파 직전의 상황으로 가서 클레어를 구하고 폭파를 막는다는 것이 줄거리다. '넥스트'는 '데자뷰'가 하려던 이야기를 미래로 돌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영화다.

최원섭씨는 "5은, 12저, 18계가 바로 일체라는 불교의 이해 방식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것만이 내게 의미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근거로 타입머신과 예언의 허구를 지적했다.

타입머신에 대해 최씨는 "영화에서처럼 타입머신을 이용해 과거로 가서 상황을 바꾸면 그것을 영향으로 현재가 달라진다. 이때 과거로 간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니다. 그와 나 사이에 타입머신을 이용한 기억이 공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언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한 가지 양상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정리하며 "예언은 예언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피하라"고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인데 예언자의 예언하는 행위가 더해서 다르마와 접촉하면 이미

변화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정대로 사건이 벌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씨의 주장은 "타입머신과 예언을 소재로 한 영화는 불교적 이해로는 타당하지 못한 기독교적 설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씨는 "SF영화의 소재 들에는 불교와 만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 불교 장치가 깔린 영화를 만들어내야 불교를 상식화하고 그렇게 상식화된 불교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플플레이 게임 상의 세계경험'을 발표한 최지연(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씨는 게임중독의 대명사로 회자됐던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 상키아 학파의 이론(인도이원론)을 설명했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 캐릭터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그 행위 결과를 감수한다"는 점을 지적한 최씨는 "현실세계의 자신이 게임을 하는 동안의 기쁨과 분노, 슬픔을 행수한다. 이렇게 게임세계에 대한 캐릭터의 경험은 플레이어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실세계의 존재인 플레이어들 '푸루샤'로, 게임의 주체를 푸루샤의 지성이 반영된 '붓다'로 설명했다. "붓다가 푸루샤의 지성을 자신이 그런 듯 착각하는 것처럼 캐릭터도 가상판단이라는 판단력을 가지며 아합카라 이하의 기관들을 지배한다"고 해 게임캐릭터를 아합카라와 11근으로 봤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는 게임 환경은 5유와 5대로 풀었다.

박효영 연구원(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소설 <빠빠옹>을 힌두철학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빠빠옹과 힌두철학"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은 "소설 <빠빠옹>에서 주인공들이 문명의 고통에 시달리며 그 것에서 탈출하고자 했다는 점이 고통 속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힌두철학의 율회·환생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포항 법광사지 사적지정 예고

불상대좌 9세기 전반 창건된 사원 불상 중 최대규모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신라 성덕대왕대의 왕실사찰이었던 포항 법광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9세기 신라 왕실사찰로 추정되는 법광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경잡기> 등의 문헌에 위치 등이 기록돼 있다.

현재는 절터만 남았지만 금당 등 건물의 주춧석과 연화석불대좌 등 남아 있는 석조유물은 창건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석가불사리탑 비문에 5칸 중층건물로 기록된 금당지는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건물구조를 보인다. 특히 금당의 불상대좌는 지름 2.42m, 높이 약 2m의 대형으로 9세기 전반에 창건된 사원의 불



법광사 금당지 불상대좌.

상 가운데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법광사지는 30일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지방단체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조동섭 기자

##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 나이 학력불문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 특강교수 : 법봉, 무승, 마정, 법인, 구화, 법천, 지고, 덕진 대영스님 등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서울 접수처 : 02)496-3951 마정 부산 접수처 : 051)335-2210 법봉  
 경북 접수처 : 011-548-3664 법인 호남 접수처 : 011-619-1322 법천  
 경남 접수처 : 055-583-8170 무승 강원 접수처 : 033-342-6940 지고

##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 불교대학원

